

# 엘리자베스 마이어의 조경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sup>†</sup>

박소영\*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엘리자베스 마이어(Elizabeth K. Meyer)는 현대 조경의 이론과 실천의 접점에서 강력한 지적 흐름을 만들어 온 조경 이론가이자 비평가이다. 마이어는 1980년대부터 이론과 비평을 통해 미술, 건축 등 타 분야에 의해 규정되어 온 조경을 독자적 어휘와 이론을 가진 사회생태적 공간 실천으로 재구축해왔다. 2000년대가 되면서 마이어의 논의는 환경문제 및 지속가능성 의제로 확장된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미가 분리된 조경 실천의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태적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물리적 형태를 가지며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조경 설계를 주장했다. '조경의 확장된 장(the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Meyer, 1997)과 '미 지속하기(sustaining beauty)', (Meyer, 2008)를 필두로 마이어의 이론은 지금까지 현대 조경의 정체성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설계에 대한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에 대한 주목과 별개로 약 사십여 년간 마이어가 제시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총체적 분석은 부채하다. 마이어는 동시대 조경의 학문과 실천의 상황을 거시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페미니즘·역사학·사회학·현상학·미학 등의 이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해석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독해해 왔다. 이론가 마이어는 지난 사십년 간 어떤 이론적 배경, 해석적 틀, 방법론을 토대로 조경을 읽는 독법(들)을 구축해 왔는가? 그러한 독법에 따라 동시대 조경의 어떤 상황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마이어의 이론적 작업은 동시대 조경의 어떤 동향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이어의 조경 이론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그녀의 이론이 취하는 이론적 토대, 해석 도구 및 방법론을 살펴본 뒤 그러한 독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이는 동시대 조경을 읽어내는 유용한 이론적 렌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 조경 이론의 동향을 드러냄으로써 담론과 실천이 상호작용하며 형성한 '바로 지금의 조경'을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II. 페미니스트 이론: 해체하고 재구축하기

1990년대 마이어의 이론적 작업은 현대 조경을 재구축하려는 기획이다. 마이어는 페미니스트 이론과 비평의 해석 도구를 적용해 현대 조경을 건축과 미술의 주변부가 아닌 독자적 어휘를 가진 분야로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재구축에 앞서 마이어는 주류 문화의 기저에 작동하는 인식론을 해체하는데, 이는 당대 페미니즘의 기획과 궤를 같이 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문화, 조경을 주변화하는 문화의 이면에는 공통으로 남성 중심의 이분법적 인식론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문화·건축은 이성을 가진 남성 주체와 연관되어 인식된다. 반면, 자연·경관은 여성으로 타자화되어 감상·탐닉되는 대상에 머무른다. 많은 페미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지적하듯, 자연·여성은 문화·남성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되며 역설적으로 보호된다고 비판한다. 현대 건축과 미술의 담론 역시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경관을 건축과 미술의 바깥, 주변, 배경으로 환원시키며 건조 경관의 역사에서 조경을 배제한다(Meyer, 1994).

기존 인식론과 현대 건축·미술 중심 담론을 해체한 자리에 현대 조경을 재위치시키기 위해 마이어는 새로운 인식론과 미학을 구축한다. 마이어는 인간과 비인간을 주체와 객체로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속체로 이해하고, 이러한 존재론적 전제에 따라 인간과 비인간-생물이 공존하고 유기체와 기계가 혼종화된 장소로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는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도나 해러웨이의 존재론, 인식론과 상통한다(Haraway, 2019). 또한 마이어는 해러웨이의 하이브리드·사이보그 개념을 참조해 경관을 시각적 대상이 아닌 살아 있거나 작동하는 주체로 확장한다. 마이어는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해 진화하는 시스템으로서 설계된 경관, 인간과 비인간을 위해 기술적으로 설계된 경관을 '경관 하이브리드', '경관 사이보그'의 사례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a) 인간과 비인간을 위한 내부적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경관을 픽처레스크한 풍경으로 평면화하거나 (b) 자연을 건축 재료로써 정량화하고 기계와 같이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마이어가 극복하고자 했던 이분법적 인식론을 재생산

†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F1A1060431).

Table 1. An overview of Elizabeth K. meyer's theories

Title	Year	Theoretical perspective influenced by	Methodology/methods
Situating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Theory as a bridging, mediating and reconciling practice	1993	Post-structuralist(Huyssen) Feminist theory & criticism (Elaine, Findlen, Haraway, Krauss, Nicholson, Rosalind, Showalter)	Historiography/ case studies
Landscape architecture as modernity's other and postmodern ground	1994		
The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1997		
Site citation: the grounds of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2005	Aesthetics, art theory (Michasiw, Miller, Kwon)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2001	Phenomenology (Berlient, Merleau-Ponty)	Rhetoric and argumentation/ case studies
Uncertain parks: citizens, disturbed sites and a risk society	2007	Phenomenology, Sociology(Beck, Buell)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2008		
Slow landscapes: a new erotics of sustainability	2009-10	Sociology, philosophy(Soper)	
Beyond "sustaining beauty": musings on a manifesto	2015	Social aesthetics(Highmore, Clough)	

하는 한계를 가진다. 사례는 인간, 기계, 유기체의 '기술적' 결합에 주목함으로써 '생태', '시스템'을 존재론적 관계가 아닌 과학적 용어로, 경관을 과학적 관리의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보여준다.

### III. 조경의 고고학: 재구축을 위한 발굴하기

마이어는 자연-문화, 경관-건축,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범주의 경계를 허물며, 그 중간지대에 현대 조경의 이론과 실천을 위치시키고 분야의 주체성을 재정립한다. 먼저 그녀는 조경 이론을 연결·매개·화해하는 실천으로 규정한다(Meyer, 1993). 마이어에 따르면 이론은 생각과 행위, 의식의 형태와 건조 형태(built form), 형식과 사회, 특정 프로젝트와 일반적 원리, 일반적 원리와 특정한 대상지를 연결하는 중간지대를 점유한다. 조경 실천에 있어 마이어는 페미니스트 미술비평가 로잘린드 크라우스(Krauss, 1979)가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차용해 모더니티의 범주가 수용할 수 없는 사이공간에서 현대 조경의 포스트모던한 실천적 장을 발견하고 장소특정성, 식물의 공간성, 기하학적 수평면을 조경 실천의 고유한 특징으로 주목한다(Meyer, 1994; 1997).

마이어는 '미시사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중간지대의 역사적 토대를 발굴한다. 미시사 연구의 선구자인 카를로 긴즈부르그(Carlo Ginzburg)가 '민중문화의 고고학'이라 비유했듯, 미시사 연구 방법은 역사의 깊은 지층에서 잊힌 유물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모던 역사학자들은 서구권, 백인, 남성 중심의 거시사를 재고하고 비서구권, 여성 등 다양한 주체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회복했다. 일반적 역사 연구가 미시적 실증에서 출발해 간과된 역사를 회복한다면 마이어의 이론은 조경의 새로

운 실천적 장을 설정한 뒤 역사적 증거를 동원해 뒷받침한다. 이어는 현대 건축·미술 중심의 역사에서 시각적 경치로 폄하된 픽처레스크 이론의 매개, 연결, 화해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Meyer, 1993), 이미지로서의 경관이 아닌 심층적 실체로서 부지(site)에 접근한 조경 실천 사례를 찾아낸다(Meyer, 2005).

마이어는 "조경 이론과 실천의 미래의 궤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돌아봄의 행위, 새로운 눈으로 보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비판적 방향으로 오래된 텍스트에 들어"간다(Meyer, 1993). 현대 조경을 재구축하고 조경 실천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대 조경의 고고학'이 활용되는 것이다. 마이어는 현대적 의미의 '생태', '부지'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생태적 실천 및 장소특정적 실천을 현대 조경의 바람직한 궤도로 결론짓는다(Meyer, 1993; 2005). 마이어의 역사적 발굴은 현대 조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고 조경 실천의 영역을 확장한다. 무엇보다도 조경이 동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끔 역사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의 풍부한 역사 속 일부를 취사선택해 일반화한다는 점에서 마이어는 현대적 입장에서 과거를 소유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IV. 지속가능성과 미적 경험

현대 조경을 재구축하려는 거시적 기획 속에서 마이어는 "생태학적 사고와 물리적인 형태를 통합하려는 해석적 렌즈"를 따르자고 제안했다(Meyer, 1993; 1994; 1997). 2000년대 마이어의 이론적 작업은 이러한 렌즈에 초점을 맞춰 현대 조경을 해석하고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녀의 논의는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첫 번째는 '조경의 현상학'을 구축하는 시기로, 2001년에 쓴

‘지구의 날 이후의 난제(post-earth day conundrum)’에서 마이어는 형식주의적인 예술로서의 조경과 목가적 경관으로 귀결되는 생태적 설계 모두를 비판하며 ‘조경 설계는 환경적 가치를 물리적·가시적 형태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마이어는 생태적 환경주의와 설계 표현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환경의 미적 경험’을 강조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설계 경관의 미적 경험은 감상자(주체)와 예술 작품(객체)이 분리된 근대적 예술 감상과 달리 감상자가 시간적, 신체적 매체인 경관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마이어에 따르면 환경과 연결되는 미적 경험을 촉발하는 조경 작품은 성숙한 생태적·환경적 의식을 만들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 관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Meyer, 2001).

두 번째 시기는 2000년대 후반으로, 마이어는 ‘물리적 촉매’로 작용하는 조경 설계를 옹호하며 조경의 지속가능성 의제 내에서 미적 경험의 역할을 천명한다. 2008년 글, ‘미 지속하기’에서 그녀는 조경 실천에서 생태적 수행과 미학을 구분하고 환경주의의 미명 아래 미를 희생시키는 것을 비판한다. 그녀는 지속가능성을 그린 인프라, 친환경 기술로 한정 짓지 않고 지속가능성 개념이 생태적 건강과의 연관을 넘어 사회적 실천과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기도한다(Meyer, 2008). 또한 사회학적·문화비평적 통찰 속에서 마이어는 환경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설계 경관의 미적 경험이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 환경 윤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Meyer, 2007; 2008; 2009).

마지막으로, 2015년 발행된 ‘미 지속하기를 넘어서(Beyond Sustaining Beauty)’에서 마이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학을 확장한다. 마이어는 1990년대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물 중심적 시각에서 지속가능성에 접근하고 그것의 미적 측면을 일상미학과 사회적 미학(social aesthetics)으로 확장한다. 마이어에 따르면 조경 실천이 만드는 공원, 가로, 캠퍼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적·감각적 경험이 미학적 집단성을 구성하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삶과 사고의 방식을 창조한다. 마이어는 환경 위기와 소비주의 사회, 개인적·집단적 미적 경험, 환경 윤리가 교차하는 곳에 사회 생태적 행위자로서 조경 실천을 위치시킨다.

## V. 나가며: 조경 위치시키기

마이어의 이론은 현대 조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동시대의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조경 실천에 투영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그녀의 이론적 작업은 당대의 조경을 위치시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이어는 1990년대에 조경의 역할과 실천 영역을 주체적으로 규정했으며 2000년대에는 조경가들에게 동시대 환경문제에 반응하며 인간과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자가 되자고 촉구한다. 마이어와 같이 조경을 계속해서 새로 위치 짓는 일은 이론의 핵심적 역할이다. 조경 이론은 동시대 사회문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조경 실천의 좌표를 계속 점검하고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Haraway, D.(2019) 사이보그 선언: 20세기 후반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해러웨이 선언문 -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황희선 역. 서울: 교보문고 167.
2. Krauss, R.(1979)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October 8 : 31-44.
3. Meyer, E.(1983) The modern framework. Landscape Architecture 73(2): 50-53.
4. Meyer, E.(1993) Situating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Theory as a Bridging, Mediating and Reconciling Practice. Design + values CELA Conference Proceedings Volume IV.
5. Meyer, E.(1994) Landscape architecture as modernity's other and postmodern ground. The Culture of Landscape Architecture. Melbourne, Australia: RMIT Press: 13-34.
6. Meyer, E.(1997) The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G. Thompson and F. Steiner, eds. John Wiley Press : 45-79.
7. Meyer, E.(2001)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Michel Conan, ed.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187-244.
8. Meyer, E.(2005) Site Citation: The Grounds of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Site Matters: Design Concepts, Histories, and Strategies. NY: Routledge: 93-129.
9. Meyer, E.(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6-23.
10. Meyer, E.(2009-10) Slow Landscapes: A new erotics of sustainability. Harvard Design Magazine 31(Fall·Winter) : 22-31.
11. Meyer, E.(2010) 불확실한 공원들\_교란된 부지, 시민, 그리고 위험 사회.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라지 파크 : 공원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 배정환 외 역. 파주 : 조경. 65-95.
12. Meyer, E.(2015) Beyond "Sustaining Beauty": Musings on a Manifesto, Values in Landscape Architecture: Finding Center in Theory and Practice. M. Elen Deming, ed.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30-53.